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



윤형근 부소장
모심과 살림 연구소

먹을 것이 흘러넘칩니다. 편의점에 가면 간단히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1회용 식품들과 각종 과자들이 진열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는 열대 과일에서부터 지구 반대편 바다에서 잡혀온 생선들까지 먹을 것으로 흘러넘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식량자급률 30% 미만의 나라, 쌀을 제외하면 5%도 안 되는 나라의 풍경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먹을 것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먹을거리 풍경만 보건대,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진정 삶의 건강과 행복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1. 아픈 아이들의 시대

먹을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통해 자연과 교감합니다. 1조 개에 이르는 사람 몸의 세포는 1년이면 전부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는가는 몸의 건강과 체질뿐만 아니라 정서와 성격까지도 결정합니다.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범죄율과 먹을거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몸도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1971년에 평균 키 148cm이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2001년에는 평균 162cm로 자랍니다. 몸무게는 40kg에서 53kg으로 늘었습니다.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향상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만큼 건강해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방송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16.6%의 아이들이 비만이었고, 고지혈증이 17.2%, 지방간이 2.7%나 된다고 합니다. 몸은 커졌지만 체력은 저하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경쟁의 심화와 공교육의 붕괴로 인한 스트레스, TV 영화 컴퓨터 등 대중매체의 발달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의 변화가 아이들 몸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국민건강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질병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은 점차 감소하고 면역결핍성 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결핍이란 신체의 면역력이 현저히 낮다는 말입니다. 어린이 질병 순위에서 1, 3, 5위를 아토피,

만성비염, 천식 등 면역결핍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25%가 천식을, 40% 정도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면역결핍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유, 달걀, 밀가루, 팥콩 등 음식물이나 집 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와 그 생활양식의 확대로 인한 생명력의 결핍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를 낳는 엄마들, 1975년생 전후의 엄마들은 정확히 근대화, 산업화라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파트 문화 등 주거 생활의 변화와 함께 각종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즉 육식과 패스트푸드의 증가, 청량음료 섭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도정식품, 정제식품, 가공식품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사회에는 식량증산을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했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방부제 등 각종 첨가물의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형성된 엄마의 몸을 모체로 태어난 아이들의 몸에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만, 각종 성인병, 면역결핍 질환 등 아이들에게 인체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 지구화된 먹을거리 시스템

산업화, 근대화의 본질 중 하나는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

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윤이 최우선의 목적인 익명의 시장을 통해 먹을거리를 구해 먹는 사회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섬세하게 돌볼 의지 따위는 전혀 없는 그 시장이 지역을 넘어 국가로, 이제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는 호주산 소고기, 중국산 콩, 칠레의 과일이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립니다. 먹을거리가 전지구화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먹을거리의 7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소비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범지구적인 먹을거리 시스템에 소비자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다국적 식품산업, 농 기업 등이 주도하면서 자급을 위한 전통적 농업을 환금작물 중심의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곡물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을 비롯하여 몬산토, 네슬레 등 이들 다국적 기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자 지배에서 GMO를 비롯한 새로운 품종의 개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먹을거리 시스템의 거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길러진 '철없는' 농산물들, 성장촉진제로 발육한 작물과 고기들, 유전자조작 농산물, 지구 반대편에서 운송된 곡류와 과일 등 자연의 시간과 속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자연 질서 교란은 이미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가족 소농을 몰락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이어집니다. 화학영농에 의존하는 대

규모 단작을 시행함으로써 경지의 산성화, 사막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거리 유통을 일반화하여 에너지 낭비를 가져옵니다. 특히 세계화된 먹을거리 시스템은 가뭄이나 한발로 인한 흉작이나 지역분쟁, 국가간 전쟁 등 세계 경제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같은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화된 먹을거리 시스템은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 등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만, 당뇨, 고지혈증, 암 등 성인병, 생활습관병의 만연과 이미 50%가 넘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면역결핍질환은 우리 사회에 세계화된 먹을거리 시스템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의 기반이었던 농업과 농촌도 세계화된 푸드 시스템의 하부에 편입되면서 붕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명이라는 우리 삶의 기초적인 안전망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3. 로컬푸드 시스템의 대두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즉, 로컬푸드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담보하고, 상품이 아닌 건강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농작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물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 의견을 생산과 소비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이동거리(food-mile)가 짧아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자연조

건에 맞는 지역농업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환경과 자연 조건에 맞는 농작물을 생산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도시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지역의 환경생태 보전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공동화(空洞化) 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먹을거리를 매개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는 지역 호혜경제의 토대가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시켜 생활 전 영역의 자치력을 키우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도 기능합니다.

이처럼 도시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배후지 농촌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 구매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은 과거 전통사회의 마을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도농공동체 모델,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 호혜의 지역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에 대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식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전북지역의 조례 제정을 시발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학교급식 운동은 이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 9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 '지역농산물', '우리농산물', '환경농산물' 등 조례의 용어는 달라지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뒤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주체가 된 제주도나 자

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는 전남 등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산업으로서 농업을 진흥시키려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호저면의 친환경 쌀과 홍천의 유기농 김치 및 강원 지역 친환경 식자재를 학교식당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강화 쌀을 소비하지는 인천과 강화의 캠페인 등도 로컬푸드 운동의 좋은 사례입니다. 아예 로컬푸드 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내걸고 지역운동을 전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농업회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가 결성되어 식량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지역의 핵심의제로 제기하면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 먹거리 정책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생산 - 지역 소비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고, 작년 7월 말부터는 전농 경북도연맹, 안동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시 지부, 한살림대구, 영남농민목회자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주관하고 경상북도, 대구시가 후원하는 농민장터를 11월말까지 매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좀더 본격화하여 경북의 농촌지역 생산자들이 식당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 및 지역물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기업구내 식당 급식, 병원 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민운동, 노동운동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민주노총 사업장 급식을 지역농민회와 연대

하여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려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1980년대 중반 우리 사회에 싹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바탕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과 그 농산물을 매개로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해 온 생활협동조합의 노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살림을 필두로 생협전국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등 현재 30만 명 가량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는 생협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대표적인 로컬푸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 학교급식운동 등의 사회운동에 생협운동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4. 로컬푸드 운동의 미래를 위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은 전 지구적인 시장 시스템으로 고사해 가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병든 아이들의 건강을 되찾는 일이며, 도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먹을거리가 흘러넘치면서도 우리의 건강과는 무관한 양적인 풍요를 넘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로컬푸드의 핵심은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이 떨어뜨려 놓은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개입하면서 멀어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유통을 통해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운동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동적인 생활문화, 두레나 세시풍속 등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중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식량 생산, 식품의 안정적 공급,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등 국토 생태 보전, 정서 함양, 상호부조 공동체문화 형성,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원적 기능, 공공적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대대적인 문화운동이 전개될 때만 로컬푸드가 바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1차적인 담당자인 농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로 이루어지는 공장식 농업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약과 제초제를 남용하면서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라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 국토 생태 보전, 그리고 공동체문화 형성이라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 개방을 넘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농민들이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나 농정 담당자를 넘어서 농산물의 소비자인 전 국민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즉, 안전한 식량 생산에서 식품 소비, 국민 건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산물의 소비자가 농정과 농업에 대한 논의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의식적 노력 속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학교급식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집합적인 소비 주체의 형성도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이렇게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의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농산물 소비를 통해 농업 회생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생협에 대한 육성과 지원, 연대가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통한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생산지 농촌과 교류하면서 자연과 소통하며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일 또한 참다운 풍요를 누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배후지 농촌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 구매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은 과거 전통사회의 마을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도농공동체 모델,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 호혜의 지역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로컬푸드가 꿈꾸는 지역의 모델은 세계화된 시장이 가져온 아픈 아이들의 시대를 넘어, 또한 무한경쟁의 전장(戰場)을 넘어 진정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㉞